

독일 쾰히슈타인 2021년 5월 5일

친애하는 형제자매 그리고 후원자 여러분,

교황청 재단 고통받는 교회 돕기(이하 ACN)의 직원들은 언제나 여러분께 정기 소식지 <사랑의 메아리>, 이메일 뉴스레터, 보고서 등을 통해 끊임없이 메시지들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들의 대부분은 박해받고 어려운 교회를 위한 기도와 도움에 대한 호소를 담고 있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날을 맞이하여, 호주에서 시작하여 필리핀과 한국, 그 다음 유럽의 15개국, 남미 4개국, 미국과 캐나다까지 ACN의 각 국가 지부들은 여러분의 너그러운 후원을 받아 그것을 세계 곳곳의 가난하고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너그러운 봉헌이 없었다면, ACN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거나 있더라도 아주 적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께서 지난 수년간 저희 ACN의 충실한 후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 편지를 통해 ACN과 여러분의 도움으로 지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여, 진심을 담아 크나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는 사랑의 한 측면이며, 하느님 은총의 선물을 우리에게 내려줍니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여러분들께서 특별한 감사에 대한 기대 없이 조용히 그들에 계시고자 하지만, 저희 ACN과 가난하고 고통받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에게는 이처럼 가까이 다가가는 방식으로 여러분께 감사를 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많은 후원자 여러분들로부터 여러분의 개인적인 시련에 대해 자주 듣습니다. 그 시련은 물질적인 종류의 것들도 있지만, 그보다는 여러분의 가정생활, 본당에서 신앙인이 겪게 되는 영성생활의 위기, 직장에서의 어려운 처지들과 그리고 개인적인 문제나 건강 문제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모든 후원자 여러분께 보다 깊은 감사와 친밀감을 표하고자, ACN은 해마다 특정 하루를 후원자분들을 위해 봉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날, ACN의 모든 사업 파트너들과 함께 특별히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지향과 관심사들을 모두 기억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이에 ACN은 올해 6월 11일인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에 이 특별한 ‘후원자의 날’을 기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너그러운 예수 성심의 자비로우신 사랑을 닮고 실천하는 데 그 근원과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사랑은 또한 ACN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은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교회에게 사랑의 봉사로부터 제외되는 인간의 필요성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창에 찢린 세상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야말로 하느님의 순수한 사랑과 자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가장 훌륭한 자질로 하느님을 닮으며, 항상 좋은 어머니와 좋은 아버지가 그들의 자녀를 위해 할 일을 정확히 합니다.

성체성사의 거행이야말로 이러한 우리의 감사를 가장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체성사는 곧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체성사 안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수난마저도 아버지 하느님께 드리는 감사의 표현으로 변화시키시며, 당신의 몸을 저희에게 빵으로 내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1년 6월 11일,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에 전 세계 수 천 명의 주교와 사제들이, 세계 곳곳의 여성 수도자들과 신학생들, 수련자들, 교리교사들, 본당과 가정 그리고 다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특별히 ACN 후원자 여러분을 위한 지향으로 거룩한 희생제사인 미사를 봉헌할 것입니다. 이들의 고통을 바로 여러분께서 덜어주셨으며, 모두 함께 여러분과 여러분의 지향을 위해 기도를 바칠 것입니다. ACN은 또한 특별한 방법으로 취약하고,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고립되어 계시는 후원자분들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이 중에서 많은 분들이 어려우신 형편에도 '과부의 헌금'을 실천해 주셨는데, 이분들의 사랑과 충실함이야말로 예수 성심의 진정한 모범입니다. ACN 후원자의 날이 감사의 큰 축제가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어느 누구도 고통받는 것을 원하거나 필요로 고통받는 것을 허락받을 수 없는 하느님의 한 가족 안에서, 즉 예수 성심의 사랑 속에서 보다 온전히 태어나고 그 가족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청합니다.

친애하는 형제자매 그리고 후원자 여러분께서 하느님의 사랑에 응답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도움을 청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어 주시고 이들의 손을 잡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손길로, 사랑의 선물을 통해 보여주신 여러분의 사랑하는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축복을 빕니다.

마르틴 마리아 바르타 신부

ACN 국제 지도신부